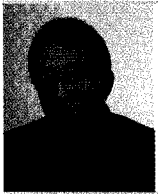


# 신축 미술관 건축에 대한 미술관장의 생각

## Opinion of Director of Art Museum for New Museum Design



배순훈 | Bae, Sun-hun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약력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 공학박사
-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회장
- 정보통신부 장관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 경영 대학원 초빙교수

미술관 건축이 건축의 꽃이라고 일반 대중이 인식한 것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인 예술의 신을 모시는 신전 형식에서 미술 관람객위주의 뉴욕 모마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미술관이 건립되었다. 미술 전시보다도 건물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은 파리의 퐁피두센터이었다. 퐁피두센터는 건물의 대부분이 미술 아카이브를 보관, 열람하는 도서관 용도로 쓰이고 있다. 건물 자체가 건축 예술작품인 미술관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절정으로 21세기 미술관 건축은 다시 미술전시와 관람객의 편의 시설 위주의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

흔히들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맞는 미술전시를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전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전시를 담은 그릇을 생각하는 미술관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 배정 절차상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 공공 미술관 건축 사업에서는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미술관이 구상되고 미술 전시기획자는 추후에 그 건물의 활용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국내 모든 미술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행정 관료들이 주관하여 건축가를 선정하고 완공 후에 운영을 담당할 미술관장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종래의 관행과는 다르게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은 미술관장이 주관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회화, 조각에서 미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백남준의 동화상과 음성이 포함된 비디오 아트로 시작하여 양성원의 소리를 보는 음악회(정미소의 “소란”), 배정완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경주선재미술관의 “미래의 추억”), 오인환의 후각을 포함시킨 미술(국립현대미술관의 “박하사탕”), 박기원의 전시장을 내부 개조한 설치예술(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위리엄

켄트리지의 모노로그 공연(아르코 공연장) 등등 미술표현에도 새로운 개념이 속출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은 이러한 작가들의 창의적 개념을 담아내야 한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술관 디자인, 미술과 건축, 미술과 공예, 미술과 음악의 복합 공연전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방문객을 위한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편의 시설은? 예술 상품의 판매는? 전시와 소장 작품에 대한 홍보는? 고객 감동을 제고하기 위한 연출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은 2012년 11월 말에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공모를 통하여 민현준 씨가 건축가로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이고 35,000 제곱미터의 건축부지 정리가 진행 중이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에 시작할 것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시기획자들이 참여했고 그 동안 15회 이상의 각종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미술계, 건축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에는 고객 자문을 통해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 갈 것이다.

서울관 신축과 더불어 과천관, 덕수궁관의 개축도 계획하고 있다. 과천관은 수장 시설 중심으로 작가와 미술이론가 중심의 전문 전시장으로 개편할 것이며 서울 대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부설로 대규모 어린이 미술관이 계획되고 있다. 덕수궁관은 도심 궁궐 속에 있는 미술관으로 궁궐 건물이 초현대적인 미술관으로 재건축 되도록 미술애호가들을 위한 각종 전문전시가 실험적으로 열리고 있다. ■